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사업 1본부 이사 김춘석

네이버 국어사전은 '대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주로 '대박이 터지다'의 형식으로 쓰여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 돈을 벌다'는 뜻을 나타낸다.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大博이란 한자에서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흥부가 큰 박을 터뜨려 횡재를 하는 장면을 연상하는 사람도 있으나 유래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다'고 밝혔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이채로웠다. 평소 정제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이름난 박근혜대통령이 대박이라는 시중의 언어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이 그렇고,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의제로 여겨진 통일을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보수적 비전을 제시하며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이를 계기로 통일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하였다. 기자회견 직후 통일은 대박이다는 대통령의 말이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었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장에 따라 동조와 비판이 뒤따랐다. 전조는 있었다. 보수언론 조선일보가 2014년 신년기획으로 '통일이 미래다'를 연재하면서 통일대박론의 기치를 들고 나왔으며, 남재준국정원장은 2015년에 자유민주주의식 통일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였다.

통일의 경로와 과정에 대한 실천 프로그램이 없는 대박론은 자칫 쪽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국가 지도자가 통일의 미래상을 이토록 간명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제시한 적은 없었지 않았나 싶다.

관심은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갈까라는 점이다. 이에 한국리서치는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적하고자 하며, 아래는 그 첫 번째 조사결과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 '경쟁해야 할 대상',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과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1.2%로 동일하였다. '경쟁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11.5%였다.(모름/무응답 6.2%)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양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54.0%)와 50대(45.3%), 이념성향별로 진보(57.5%)에서 높다. 반면,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이라는 응답은 30대 이하와 60세 이상, 보수층에서 높다. 30대 이하 특히, 20대 이하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보수층과 유사한 점, 이념성향에서 중도층의 응답결과가 전체 조사결과와 유사한 점 등이 주목된다.

그림1.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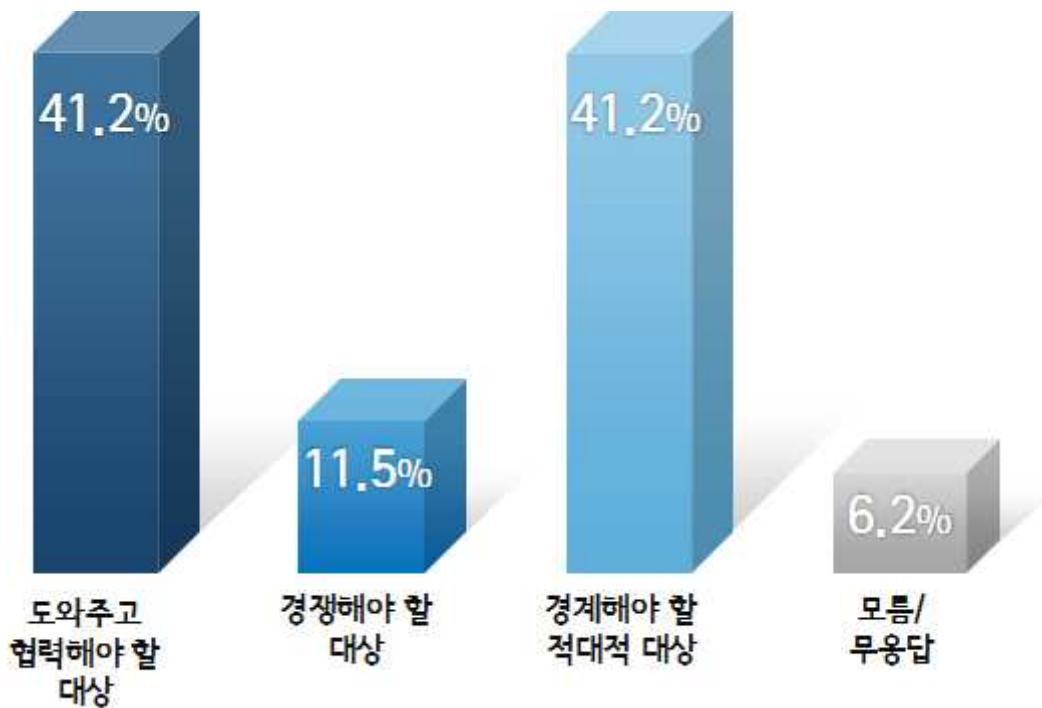


표1. 북한에 대한 인식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	경쟁해야 할 대상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000)	41.2	11.5	41.2	6.2	100.0
연령						
19-29세	(179)	31.2	16.1	45.7	7.1	100.0
30-39세	(197)	41.1	8.3	45.6	4.9	100.0
40-49세	(217)	54.0	10.2	30.7	5.2	100.0
50-59세	(196)	45.3	9.6	39.4	5.6	100.0
60세이상	(212)	32.7	13.5	45.7	8.1	100.0
이념성향						
진보(0-4)	(220)	57.5 ▲	11.0	28.1 ▼	3.4	100.0
중도(5)	(399)	41.6	11.8	41.2	5.4	100.0
보수(6-10)	(285)	34.0	11.0	52.3	2.6	100.0
모름/무응답	(95)	23.0	12.3	38.4	26.4	100.0

통일에 대한 인식도 확인하였다.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23.1%,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57.5%,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17.5%였다.(모름/무응답 1.9%)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과반 이상이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이하보다 50대 이상이 많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0대 이하가 40대 이상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통일의 필요성을 과거 경험이나 작금의 현실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젊은 층의 통일관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결부하여 주목되는 것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이념성향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림2.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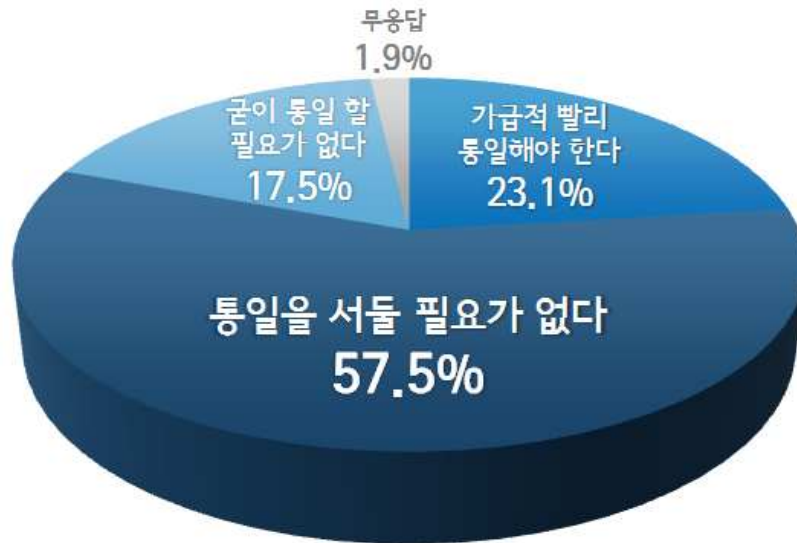


표2. 통일에 대한 인식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한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계
▣ 전체 ▣	(1,000)	23.1	57.5	17.5	1.9	100.0
연령						
19-29세	(179)	21.9	44.7	31.7	1.7	100.0
30-39세	(197)	17.8	56.0	24.8	1.3	100.0
40-49세	(217)	22.6	63.2	13.2	0.9	100.0
50-59세	(196)	24.7	61.3	11.1	2.9	100.0
60세이상	(212)	27.8	60.2	9.1	2.9	100.0
이념성향						
진보(0-4)	(220)	23.2	58.4	17.5	0.9	100.0
중도(5)	(399)	21.6	58.2	18.7	1.4	100.0
보수(6-10)	(285)	22.6	62.1	14.7	0.6	100.0
모름/무응답	(95)	30.2	38.5	20.8	10.5	100.0

이제 통일은 우리에게 민족과 이념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점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은 국민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통찰적 언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인식 결과와 통일에 대한 인식 결과를 교차하여 보았다. 북한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자,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3.4%, 북한을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이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0.9%였다. 응답자의 23.1%는 북한을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23.5%는 북한을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생각하여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6.3%의 응답자는 북한을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생각함과 아울러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3.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교차표

(단위 : %)

		통일에 대한 인식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모름/무응답	합계
북 한 에	도와주고 협력해야 할 대상	13.4	23.1	4.1	0.6	41.2
	경쟁해야 할 대상	2.3	7.5	1.7	-	11.5
대 한	경계해야 할 적대적 대상	6.3	23.5	10.9	0.5	41.2
	모름/무응답	1.1	3.4	0.8	0.9	6.2
인 식	합계	23.1	57.4	17.5	2.0	100.0

한국리서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기 옴니버스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자 하며, 조사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다.

표4. 한국리서치 정기 옴니버스 조사 설계

<p>정기 옴니버스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조사에 복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
<p>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비용 ▪ 최대효과 ▪ 정기성 : 조사시점 효과 배제 ▪ Daily Survey 대비 조사시점 여론 파악의 신뢰성/타당성 보증
<p>조사대상 조사표본 조사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 조사표본 : 1,000명(95%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 조사시기 : 매월 셋째주 금요일/토요일(2일간)
<p>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p>조사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공통문항 : 국정운영평가(하위문항 포함), 정당지지도, 이념성향, 계층인식, 응답자 특성 문항(지역,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자차가 여부) ▪ 연간 추적문항 : 공기업 정상화, 대북인식, 통일인식, 주요 정치인 호감도, 정당평가 ▪ 고객 의뢰문항 : 5-10문항(전체 20문항 이하) (국정운영 평가 하위문항, 연간 추적문항 등은 조사표본 1,000명을 500명씩 양분하여 질문함으로써 응답자 응답 부담을 최소화 함)